

복장 사회심리학 측면에서 본 의복의 동조성에 관한 분석 연구

황 선 진

인간이 의복을 사용하는 것을 인간 행동의 한 형태로 보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복이 가진 의미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일련의 운동은 복장 사회심리학이라는 분야를 형성하였다. 1920년 후반부터 미국에서 중심이 되어서 발전되어온 이 분야는, 의복과 개인의 외모를 사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또는 경영학 분야의 이론 중에서 의류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하여 오면서 발전하였다.

특히 1980년대 초기부터, 미국의 의류학자들은 의류학을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1985년 미국의 의류학자 모임인 APCTC (Association of Colloge Professors of Textiles and Clothing) 지도자들은 의류학 분야의 1) 연구의 활성화 2) 다면적 분야로서 의류학 자체의 이론 정립 3) 이러한 연구와 지식을 사회에 전달하는 사명을 미래의 의류학 발전 방향으로 삼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최근 미국 의류학회의 복장 사회심리학의 경향을 보면, 60년대 말부터 계속된 복장 사회심리학의 전반적인 연구를 분석·재검토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과 재평가를 통하여 앞으로의 복장 사회심리학 분야를 올바르게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Davis, 1984; Hutton, 1984).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맞추어, 본 고에서는 그동안 복장 사회심리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온 분야의 하나인 “의복의 동조성”에 관하여, 지금까지 발표 되어진 것을 비교·분석함으

로써, 앞으로 의복과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첫째로, 본고에서는 1960년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의복의 동조성 연구를 연구설계(Research Design)에 따라 1) 설문지 조사법(Survey)과 2) 실험적 연구(Experimental Design)로 나누고, 설문지 조사법에는 1) Creekmore를 중심으로 한 연구, 2) Eicher를 중심으로 한 연구, 3) Compton과 Gurel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포함하였고, 실험적 연구에는 최근에 발표된 Davis와 Miller의 연구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연구를 1) 이론적 체계 2) 조사 방법론 3) 연구 대상자 4) 연구문제의 서술법 5) 이론적 개념 정의와 조작적 개념 정의 그리고 6)

1) 의복의 동조성 분야의 주요 연구자

설문지 조사법 (surver)	실험적 연구 (Experimantal-Design)
Creekmore, A. M. (1980) Smucker and Creekmore (1972)	Davis and Miller(1982)
Hendncks, Kelly and Eicher (1968)	
Kelly and Eicher(1970) Littrell and Eicher(1973) Eicher, Kelly and Wass (1974)	
Gurel, Wilbur and Gurel (1972)	
Taylor and Compton(1968)	

2) 주된 이론적 체계(Theoretical Framework)

설문지 조사법	실험적 연구
상징적 상호이론적 방법 (Symbolic Interaction Approach)	Asch(1951)에 의해 개발된 동조성 연구 paradigm

가설과 연구결과를 Diagram으로 나타내면서 비교·분석을 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의복의 동조성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하여 미국의 ACP-TC의 기본 방침에 맞추어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조사 방법론(Research Method)

Creekmore group : 설문지. 설문지 조사법 (Cross-Sectional)	Davis Miller : 실험적 디자인 (Experimental design)
Eicher group : 4년간의 longitudinal 연구로 설문지와 structured Interview를 같이 사용	
Gurel and Compton group : 설문지 조사법 (Cross-Sectional 연구)	

지금까지 된 것을 다시 살펴보면, 의복의 동조성에 관한 연구는 설문지 조사법과 실험적 연구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설문지 조사법에는 Cross-sectional과 Longitudinal 두 종류가 쓰여졌으므로 설문지 조사법 중에서 Cross-sectional 연구가 근간을 이루는 다른 분야에 비하면, 조사 방법론이 비교적 다양한 편이고, Eicher group의 4년 간에 걸친 Longitudinal Design은 특기할 만 하겠다.

1980년대의 ACPTC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볼 때 의류학 분야 나름대로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제된 상태에서의 실험적 연구와 함께, 우리의 일상 생활(natural setting)에서의 실험적 조사 방법이나 qualitative 방법론이 더 하여져야고 본다. 예를들면, 이 분야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qualitative 방법론에서 집단 interview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심층으로 관찰하는 indepth participant observation 등과 같은 좀더 핵심적인 방법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4) 연구 대상자(Sample)

Creekmore group : 228명의 남·녀 청소년	Davis and Miller : 160명의 여자 대학생
Eicher group : 241명의 남·녀 청소년	
Gurel : 302명의 청소년	
Taylor and Compton : 35명	

위의 연구가들은 모두 비확률적 표준(non-probability)과 purposive sample 추출 방법을 썼으며, 특히 미시간 주립대학의 Creekmore와 Eicher group은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al Station의 커다란 연구 project에 참여한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청소년이나 여대생이 연구대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 결과를 좀더 일반화시키고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이나 여대생의 범주를 벗어나서, 어린이 집단이나 중년 또는 노년등 연령이 다른 층이나 남성을 골고루 포함하여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동조성의 변화 단계가 의복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볼 수 있는 좀더 random 하고 representative한 방법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겠다.

5) 용어 정의(Concept Definition)

Creekmore group :

이론적 개념정의(Theoretical Definition) :
또래 집단에서 가장 많이 입혀지는 의복과 개인의 의복 수가 겹치는 정도

조작적 개념정의(Operational Definition) : 고등학생의 의복의 인식도와 동조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Horn이 개발한 측정 도구를 수정

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 :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Eicher group :

이론적 개념정의 : 또래집단에서 가장 많이 입혀지는 의복과 개인의 의복 수가 겹치는 정도

조작적 개념정의 : 가장 많이 입혀진 옷과 일치하는 개인의 옷의 정도

신뢰도와 타당도 :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Guter et al. (1972)

이론적 개념정의 : 언급하지 않았다.

조작적 개념정의 : 조사자가 의복의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부유층과 중산층 청소년이 여가 시간에 입는 옷을 관찰하여 작성하였다.

신뢰도 : 주요 조사자와 예비적으로 60명의 연구 대상자의 의복 항목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준 3명의 여학생과 같이 하였다.

타당도 : 언급하지 않았다.

Taylor and Compton(1968)

이론적 개념정의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동조성은 장식성, 흥미, 안락과 경제성등 5가지 면을 다룬 Aiken의 의복의 의사도를 가지고 조사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Davis와 Miller(1982)

이론적 개념정의 : 실제 또는 가상 집단간의 압력으로서 그 집단에 동조하기 위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

조작적 개념정의 : 조사자가 맨 처음에 가장 유행하는 것이라고 판정했던 그림이 나중에 바뀌는 정도

위의 언급된 학자들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동조성”이라는 개념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한 개념이 일관성있게 정의되어 꾸준히 연구되지 못하는 전반적인 사회심리 분야의 만성적인 문제를 잘 대변해 주는 것 같다.

예를들면 Creekmore나 Eicher group은 의복의 동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 연구자가 학생들의 옷을 관찰한 다음 2) 남·녀 학생별로 비슷비슷한 옷을 묶어서 스케치 했으며 3) 그려진 스케치에서 연구 대상자들이 가장 유행되는 옷을 식별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4) 연구 조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하던 날 학생들의 의복을 Video에 담아서 그 조사 대상자가 입은 옷과 유행하는 옷과의 일치되는 빈도에 따라 점수를 주어서 측정하였다. 즉 동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연구가 행해지던 날 연구 대상자들이 입은 옷을 학생들의 가장 일반적인 옷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제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에는, 좀 더 많은 옷의 변화를 가지고 비슷한 연구가 일관성있게 행해지고, 동조하는 학생과 비동조하는 학생을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에는 조사자의 가치관(value)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위의 개발된 측정 도구에는 조사자의 가치관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복장 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보다 강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Eicher group의 4년에 걸친 연구는 교우관계를 알아보려고 사용되어진 Sociometric 방법이 유연성이 있고 쉽기는 하나 항상 Sociometric으로 뽑혀진 가장 친한 친구가 실제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Sociometric 선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스런 상태(natural setting)에서의 동조 행동이 의복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관찰하여 결론적으로, 사회학자 Cohen이 주장했듯이, 어느 분야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개념의 이론적 정의와 그 개념이 그 분야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가

장 하위적 단계에서 어떻게 조작되어 정의를 내려야 하는지가 이 동조성 분야의 연구에서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겠다.

6) 연구 문제 서술법(Nature of Question)

Creekmore group, Eicher 상호 연관적 관계
group Compton and gurel (Correlation)

Davis and Miller : 인과관계(causal
relation)

다음의 가설과 연구결과의 도표<1>에서 보듯이, Davis와 Miller의 연구를 제외하고, 동조성 분야의 연구는 상호 연관적인 관계에 의한 문제 서술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호 연관적인 관계에 의한 문제 서술은 청소년의 사회 참여도와 의복의 동조성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여주지만, Correlation 그 자체는, 또래 집단의 승인, 사회적 참여도,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발달을 설명하는데 의복의 역할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거나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콜로라도 대학의 Hutton 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거나,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이론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호 연관적인 관계보다는 방향이 있거나 추측가능한 연구문제를 서술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알맞는 조작으로 일상생활터전에서 실험적·관찰적 방법을 사용하여 변인간의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거나 어떤 추측가능한 결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문제를 서술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7) 가설과 연구결과(Hypotheses and Findings)

도표 <1> 참조

8) 제언

도표 <1>에 근거하여 볼때,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진 의복의 동조성 연구는 "준거집단", "동료 집단의 승인", "사회 활동의 참여도", 또는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분야의 연구는 자아(개인)와 사회적 제약(예를들면, 집단의 규범) 또는 집합적

행동(Collective Behavior)과의 상호연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이 분야의 방향 설정을 위한 몇가지 제언이 가능하다고 본다.

1, 준거집단의 개념은 의복의 동조성을 연구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화 과정이론이나 발달 심리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의 주된 준거집단으로는 가족과 동료 그리고 대중매체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한다. 특히, 가족은 어린이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며, 소비자 사회화 과정이론이나 Communication 분야의 이론과 연구에 의하면 가족은 그 구성원인 어린이나 청소년이 다른 준거집단인 동료나 대중매체와의 상호 관계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집단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분야의 연구에서 동료집단의 영향만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구계획에서, 가족과 다른 준거집단을 변인으로 포함하는 것이 의복의 동조성에 영향을 주는 준거집단의 포괄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간의 Communication 과정이나 정보교환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가족간에 어떤 가치관이나 행동이 전해지는 가를 포함하는 것이 의복의 동조성에 관한 준거집단의 영향력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겠다.

2.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의 의복 동조성에 관한 연구에서 동료집단의 영향력을 연구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로부터 동료집단으로 동조해가는 동조성의 변화 과정을 연구한 것은 극히 드물다. 발달 심리학자 Bronfenbrenner 에 따르면, 아동 중기에서 청소년 중기때까지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이 증가한다고 하며, 그의 추종자들에 따르면,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은 청소년 말기에 이르면 자율성의 증가로 점차 감소한다고 한다. 즉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중기에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이 최고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동조성의 이론을 의류학에 적용시키려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또래집단으로 옮겨가는 동조성의 발달적인 변화가 앞으로의 의류학 연구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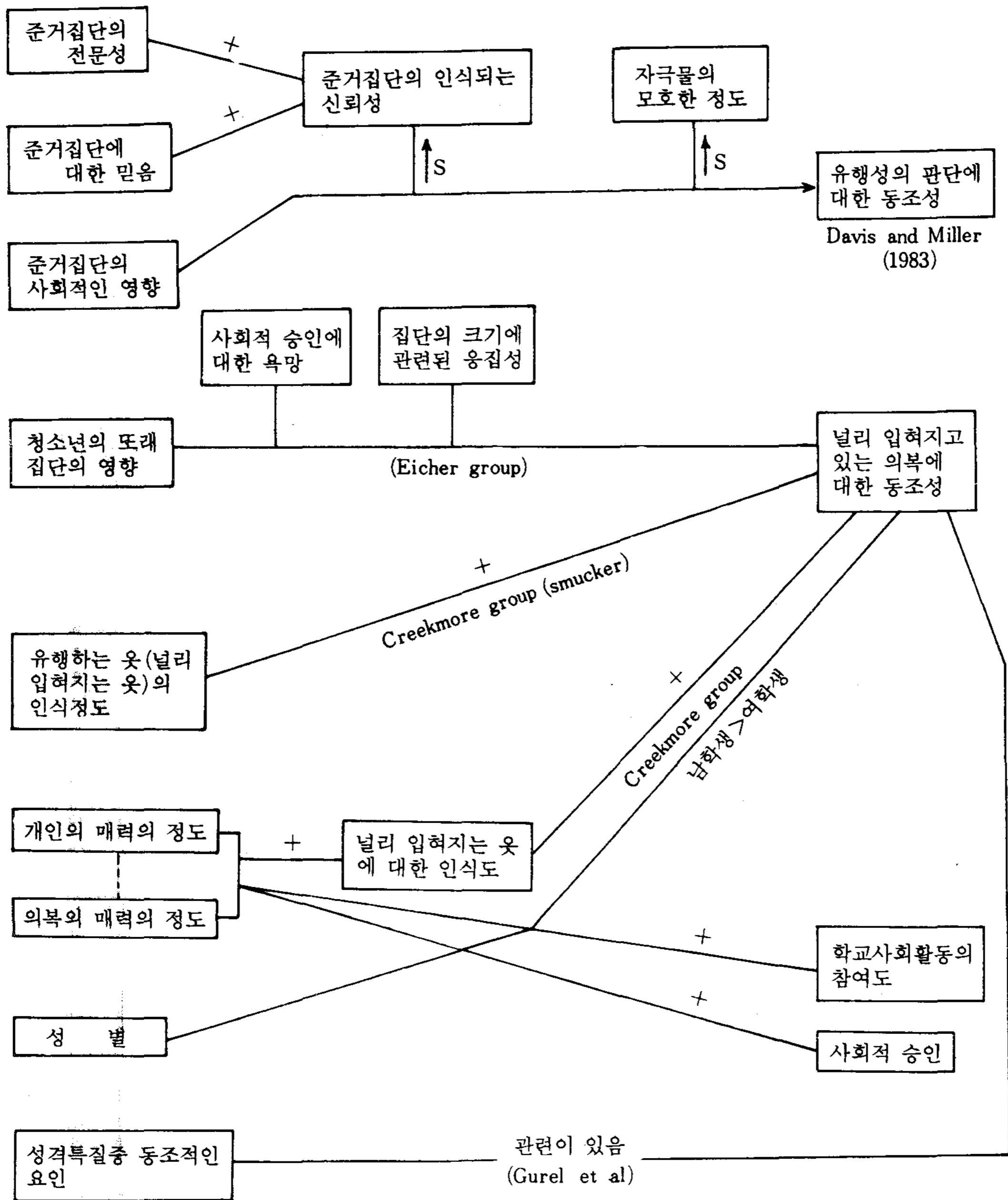


도표 1: <의복의 동조성에 관한 연구: 간략히 나타낸 가설 및 결과>

참고: + : 정적인 상관관계
 - : 부적인 상관관계
 ↑S : 중재변인(Intervening variable)이 증가할수록 관계가 강화된다.
 > : 부등호

나이는 의복의 동조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독립변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Eicher 집단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이 속해있는 사회계층은, 청소년의 또래집단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예를들면, 가장 인기있는 여학생과 가장 옷을 잘입는 여학생과는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남들에 의해 승인되는 것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소속 집단에 승인되는 것은 그들의 의복 선택과 매우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것은 의복의 deprivation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복을 통한 자유감을 연구한 Lowe와 Anspach (1982)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의복을 선택하는데 경제적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제적으로 특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소년집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의 소비자 행동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속해있는 사회 계층이나 의복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의 출처는 의복 구매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어떠한 나이에도, 의복을 위해 쓰는 비용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미적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 경제적인 제약을 많이 받지 않고 의복을 입는 것은 그 자신의 사회적 승인과 자아의 확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속해 있는 사회계층 역시 의복의 동조성관 관련이 깊다고 보겠다. 따라서 사회계층 역시 주요한 독립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Compton(1974)은 어떤 학문이 성장하려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의 체계 발전이 형성되어야 그 분야의 이론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복장 사회 심리학도 그 분야의 이론 발달을 촉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주요개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정의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명확히 정의된 개념(concept clarity)은, 이론이 연구에 적용되어질 때,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다.

동조성 연구를 예를들면, 많은 학자들이 “동

조성”을 unidirectional 한 형상으로 보고 있다. 즉, 많은 연구자들이 동조성을 일직선상의 양극적인 짝(pair)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Asch는 동조성과 독립성(Conformity vs Independence), Willis는 동조성과 비동조성(Conformity vs anticonformity), 그리고 Low와 Anspach는 동조성과 자유(Conformity vs Freedom)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위의 열거한 용어가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는지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많은 학자들이, 과거에 동조성과 짝을 이루던 개념들이 실제로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며, 단지 양극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의복의 동조성 개념의 위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일련의 연구를 계속해온 University of Illinois의 Low와 Anspach (1973, 1978)에 의하면, 우리는 의복에 관해 동조하거나 이탈하기 위한 자유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년간 “의복의 자유성” 연구를 해온 같은 대학의 Lowe와 Buckley(1982)에 따르면 흔히 동조성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 자유성은, 다른 차원(dimension)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듯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연구하기 위한 위의 학자들의 노력은 이 분야의 이론을 체계화하는데 매우 가치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류의 연구가 다른 주요개념 연구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방법론적인 견지에서 볼 때, 동조성 분야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역적(logio-deductive) 방법, 즉 여러가지 이론에서 출발하여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역법에 대응하는 또 다른 방법은 사회학자 Glaser and Strauss(1987)가 grounded theory라고 이름붙인 귀납적(logio-inductive)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이미 세워진 어떤 이론에서 연구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장(field)에서 그에 적합한 개념과 가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의류학에서 이러한 귀납적인 접근 방법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역설한 Daly (1984)에 의하면 이러한 qualitative/ethnographic 한 방법은, 인

간의 여러 다양한 행동과 의복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복장 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에 매우 유용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동조성 연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보다 폭넓고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학·심리학등 기존의 상호 심리이론이나 인지적 사회이론뿐만아니라, qualitative/ethnographic 방법론을 도입하여 의류학 나름대로의 명제와 측정·타당한 가설을 만들어 독자적인 이론을 세우도록 노력하여야겠다. 특히 여러 연령층과 각기 다른 성별의 남녀를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조성의 발달적인 측면을 다각도로 측정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참고 문헌

- Asch, S. E. (1951) "Effects of group pressure upon and distortion of judgements." In H. Guetzkow(Ed.), *Groups of leadership and Men*. Pittsburgh, PA : Carnegie Press
- Bronfenbrenner, Urie (1970) *Two worlds of Childhood*, N. Y: Russell Sage Foundafion.
- Cohen, A. F. (1980) *Developing Sociological Knowledge: Theory and Method*. N. J. : Prentice-Hall.
- Creekmore, A. M. (1980) "Clothing and Personal attractiveness of adolescents related to conformity to clothing mode, peer acceptance, and leadership potentia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 : 203—215.
- Daly, M. C. (1984) "Use of ethnographic approach as interpretive with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Textiles and Clothing as an examp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 354—362.
- Davis, L. L. (1984) "Clothing and human behavio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 325—339.
- Davis and Miller (1983) "Conformity of judgments of fashionabil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4) : 337—342.
- Eicher, Kelly and Wass (1970) "A longitudinal of popularity, group membership and dr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62(4) : 246—250
- Glaser, B. and Strauss(1978), A.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 Y. : Aldine Pub.
- Gurel, Wilbur and Gurel (1972) "Personality correlates of adolescent clothing styl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4 : 42—47.
- Hendricks, Kelly and Eicher(1986) "Senior girls' appearance and social acceptance" *Journal of Home Economics*, 60(3) : 167—172.
- Hutton, S. (1984) "State of art: Clothing as a form of human behavio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 304—353.
- Littrell and Eicher (1973) "Clothing opinions and the social acceptance process among adolescents" *Adolescence* 8 : 197—212.
- Lowe and Anspach (1973) "Toward a definition of freedom in dres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 : 246—250.
- Lowe and Buckley (1982) "Freedom and conformity in dress: A Two-dimensional Approach"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2) : 197—204.
- Smucker and Creekmore (1972) "Adolescent clothing conformity, awareness, and peer accepta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 : 92—97.
- Taylor and Compton (1986) "Personality correlates of dress conform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60 : 653—656.